

당송팔대가에 대한 문화유산 담론 분석*

- 『백가강단』 ‘2차 당송팔대가강연’을 중심으로

임춘영*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글 | 4. 문예전범의 담론 |
| 2. 강연의 문화유산 프레임 | 5. 나오는 글 |
| 3. 정신규범의 담론 | |

【초록】

이 연구는 중국의 대중강연 프로그램 『백가강단』의 ‘2차 당송팔대가강연’에서 강연진이 당송팔대가에 대해 문화유산으로 규정하는 담론의 실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주요하게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송팔대가를 총체적 문화 역량을 보유한 집단이고 정신적·문예적 가치를 지닌 문화 본보기로 틀 짓는 강연 속의 프레임을 규명했다. 둘째, 당송팔대가를 덕행의 사표, 인격의 표본, 전인의 기준으로 해설하는 강연진의 담론을 분석하여 당송팔대가 전체를 중국의 정신규범으로 정립하는 근거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셋째, 당송팔대가 문예를 혁신의 전형, 창조의 모범으로 해설하는 강연진의 담론을 분석하여 당송팔대가의 창작을 중국의 문예전범으로 정립하는 근거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당송팔대가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로 홍보하는 ‘2차 강연’에 대해 문화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키워드】 백가강단, 당송팔대가강연, 문화유산, 정신규범, 문예전범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8046316)

** 임춘영. 동아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cunying@dau.ac.kr)

1. 들어가는 글

중국의 국영방송국 CCTV는 2001년부터 대중학술강연 프로그램 『百家講壇』을 방영해오고 있다. 20년 넘도록 방영되고 있는 『백가강단』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역사와 문학교전 강연은 방영 초기부터 시청자의 큰 인기를 얻으며 TV 강연의 대명사이자 전통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전인문학 강연은 『백가강단』 전체 프로그램 중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문학교전은 강연의 핵심 주제이다. 중국에서 문화 원형으로 공인하고 있는 神話·唐詩·唐宋八大家·西廂記·三國志·西遊記·水滸誌·紅樓夢·聊齋志異 등이 문학교전 강연의 주요 텍스트에 해당한다. 이 중 당송팔대가의 인생과 문예를 소개한 ‘唐宋八大家講壇’은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되었다. ‘1차 당송팔대가강연’(이하 ‘1차 강연’)은 2010년~2012년에 베이징사범대학의 강진(康震) 교수가 전담하여 강연하였다. ‘2차 당송팔대가강연’(이하 ‘2차 강연’)은 2015년~2016년에 중국 중점대학의 교수로 구성된 5인의 문화학자들이 분담하여 강연하였다.¹⁾ 두 차례의 강연은 강연자 구성, 강연의 분량과 주제 방면에서 상이하게 전개되었다. 1인 전담의 ‘1차 강연’은 총75편 분량에 당송팔대가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주제가 포괄적이고 다원적이다. 5인 분담의 ‘2차 강연’은 총24편 분량에 당송팔대가를 일정한 틀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 주제가 특정하고 일원적이다.

당송팔대가는 중국 문화사의 상징이고 문학사의 주역이며 당송시기 문학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그들의 문학작품은 현대 중국의 중고등학교 국어과목에 규범적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학술적·교육적으로 가치가 큰 텍스트라 할 수 있다. 21세기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TV에서 재현하고 있는 텍스트는 『백가강단』이 유일하다. 중국에서 『백가강단』이 갖는 권위성·전문성·대중성을 고려할 때, 당송팔대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방영한 것은 현실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 볼 수

1) ‘2차 당송팔대가강연’의 방영 일자, 강연 내용, 강연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방영 일자	강연 내용	강연자 정보
【上部】 2015년 8월 4~6일	唐宋八大家·韓 愈 (총3편)	呂玉華 (산둥대학 부교수)
2015년 8월 7~9일	唐宋八大家·柳宗元 (총3편)	呂玉華 (산둥대학 부교수)
2015년 8월 10~13일	唐宋八大家·蘇 軾 (총4편)	鄺 波 (남경사범대학 교수)
2015년 8월 14~17일	唐宋八大家·王安石 (총4편)	王立群 (하남대학 교수)
【下部】 2016년 8월 4~5일	唐宋八大家·蘇 洵 (총2편)	鄺 波 (남경사범대학 교수)
2016년 8월 10~11일	唐宋八大家·蘇 轍 (총2편)	鄺 波 (남경사범대학 교수)
2016년 8월 12~15일	唐宋八大家·歐陽修 (총4편)	林 岩 (화중사범대학 교수)
2016년 8월 16~17일	唐宋八大家·曾 鞏 (총2편)	高長山 (동북사범대학 교수)

있다. 당송팔대가를 대상으로 한 강연을 연속적·총체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2차 강연’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목할 것은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당송팔대가강연은 문학적 담론보다 문화적 담론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강연자들은 당송팔대가의 삶의 이력, 사상 지향, 문예 창작을 결합하여 중국적 사유와 지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2차 강연’에서는 당송팔대가를 문화거인, 문학거장으로 판정하며 중국의 문화 전통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부각한다. 그들의 인생업적과 연계한 정신의 규범성, 문예공적과 연결한 문예의 전범성을 긍정하며 당송팔대가의 문화적 역할을 표창한다. 오늘의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 당송팔대가를 문화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은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경향을 공통점에 근거하여 개괄해보면 크게 ‘수용사와 경전화’, ‘각론’, ‘총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당송팔대가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²⁾ 첫째, 당송팔대가에 대한 ‘수용사와 경전화’ 연구이다. 한국의 경우, 王安石·蘇洵·蘇軾의 문장에 대해서 조선시기 지식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며 수용했는지와 영향력을 주로 분석하였다.³⁾ 중국의 경우, 韓愈·王安石·蘇洵·曾鞏의 문학에 대해서 명청시기 지식계가 수용한 상황과 경전화 과정을 주로 탐구하였다.⁴⁾ 둘째, 당송팔대가 개별을 대상으로 한 ‘각론’ 연구이다. 한국의 경우, 韓愈·柳宗元·歐陽修·蘇軾을 중심으로 이들 고문의 문체와 구체적 작품의 스타일을 주로 고찰하였다.⁵⁾ 중국의 경우, 韓愈·王安石·蘇洵·曾鞏을 중심으로 이들이 창작한 특정 문체, 문학작품, 인생과 철학적 지향을 주로 규명하였다.⁶⁾ 셋째, 당송팔대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론’ 연구

2) 한국의 선행연구는 ‘RISS’에서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박사학위논문(1편), 석사학위논문(3편), 학술논문(9편) 총13편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선행연구는 ‘CNKI’에서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박사학위논문(2편), 석사학위논문(9편), 학술논문(21편) 총32편을 검토하였다.

3) 대표적으로 「王安石에 대한 조선의 평가와 인식: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최석원·김보경, 『인문과학연구논총』, 제41권,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03)을 들 수 있다.

4) 대표적으로 명대의 과거제도, 출판업, 고문선본 방면에서 한유의 고문 수용 상황을 연구한 『明代韓愈古文接受研究——以明代古文選本為視角』(莫琮, 西北大學 博士論文, 2019.05), 명대에 전개된 소순 고문의 경전화를 풍격론·연원론·문법론·품평론 방면에서 정리한 『蘇洵古文經典化研究』(許迪, 河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19.03)을 들 수 있다.

5) 대표적으로 구양수·소식의 서신집 정수인 ‘手簡’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밝힌 『역주(譯註) 구소수간(歐蘇手簡)』(유미정,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21.02), 유종원의 의론문 48편을 대상으로 세 가지 내용과 논리전개 방식을 분석한 『유종원 의론산문 연구』(조혜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20.08)을 들 수 있다.

6) 대표적으로 증공의 인품과 문품의 상관성을 해석하여 증공의 문장과 사람됨의 연관성을 분석한 「淺論曾鞏的人品·文品及官品」(林亞斐, 『東華理工大學學報』, 第38卷, 東華理工大學 社會科學研究所, 2019.09)를 들 수 있다.

이다. 한국의 경우, 당송팔대가의 인생과 문학에 내재한 정신 가치를 분석하여 현대 중국인의 가치관 유형으로 탐구한 연구 1편이 있다.⁷⁾ 중국의 경우, 당송팔대가를 주제로 한 문물전시에 대한 평론, 당송팔대가의 서예작품에 대한 비평, 당송팔대가의 문학적취와 문화가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⁸⁾ 이로써 한국의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중심으로 당송팔대가 개별에 대한 문학적 각론이 우세하고 학술논문 중심으로 조선시기 수용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송팔대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론 연구는 매우 드문 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선행연구는 수용사와 경전화 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 당송팔대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론 연구가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되는 점, 당송팔대가 개인별로 문학과 인생을 총체적으로 비평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추세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에서 당송팔대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총론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또 한중 양국을 막론하고 당송팔대가강연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2차 강연’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중국의 미디어에서 재현하고 있는 당송팔대가에 대해 총체적·문화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당송팔대가를 문화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2차 강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강연자의 해설에 보이는 당송팔대가에 대한 문화유산 담론의 실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⁹⁾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1차 강연’은 현대 중국인이 실행하고 배양해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송팔대가를 문화자원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전면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2차 강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송팔대가를 문화자산으로 구축하는 뚜렷한 근거와 전면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2차 강연’은 복수의 강연진이 진행하지만 오히려 동일한 프레임을 활용하여 당송팔대가를 중국의 문화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 강연진의 발화에서 당송팔대가를 一代宗師와 一代文宗으로 규정하고,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틀 짓는 많은 해석과 관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연진이 특별히 선택하고 강조하며 긍정하는 진술에 나타나는 문화 가치 관련 메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송팔대가를 문화콘텐츠로 구축하는 데 동원하는

7) 임춘영, 「‘당송팔대가강연’에 나타난 현대중국인의 가치관」, 『동방학』, 제4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08.

8) 대표적으로 2020년 遼寧省 박물관에서 개최한 ‘唐宋八大家主题文物展’의 전시 문물과 인기 현상을 해설한 「文采·史实·哲思-辽宁省博物馆“山高水长-唐宋八大家主题文物展”随想」(董宝厚·周维新, 『美术观察』, 第3期, 中国艺术研究院, 2021.03), 당송팔대가의 문학작품, 문이론, 문예비평, 품성 행동을 분석하고 문학과 문화적 가치를 규명한 「整体论视阈下的唐宋八大家研究」(李源清, 『佳木斯职业学院学报』, 第7期, 广西幼儿师范高等专科学校, 2020.07)을 들 수 있다.

9)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방법론』, 컬처룩, 2015, pp.145-153. 담론분석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였다.

특정한 진술과 해석이 문화유산 담론의 근거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2차 강연’의 영상 24편을 방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세밀하게 시청하면서 강연진이 강조하고 긍정 하는 해석의 패턴을 분석해서 범주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2. 강연의 문화유산 프레임

고전문학 당송팔대가를 미디어로 재현한 것이 ‘2차 강연’이다. 21세기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강연하는 목적, 당송팔대가를 통해서 전파하려는 문화가치, 그것의 현재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연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프레임 분석 방법에 주목하였다. 개념적으로 ‘해석의 틀’ 혹은 ‘관점’을 의미하는 프레임은 미디어 담론의 내용을 논의하는 일반적인 분석 방법이다.¹⁰⁾ 중국의 CCTV는 국영방송국이고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 의해 관리받고 있다. 강연의 담론에 당정의 의도적인 해석과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 ‘2차 강연’을 시청해보면 강연진의 담론은 특정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강조하는 프레임에 맞추어 재구성한 당송팔대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¹¹⁾ 다시 말하자면, 강연진은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해석하는 판단에 근거하여 수많은 사실 정보 중에서 강연에 필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재조합하며 ‘당송팔대가=문화유산’이라는 메시지를 시청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¹²⁾

‘2차 강연’에는 시청자들이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두 가지 프레임이 존재한다. 먼저 강연진 각자가 담당한 개별 작가에 대한 강연의 첫 편에서 당송팔대가의 총체적인 문화 역량을 상징하는 定言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틀 짓는 표층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¹³⁾ 강연진은 당송팔대가 모두가 문화 역량을 보유한 문화적 자산임을 반복해서 선언한다. 또 당송팔대가 전체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자주 언급하고 중국 문화에 기여한 공헌을 명

10) 이준웅,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회』, 제29권,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00.12, pp.89-96.

11) 김원용·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보도」, 『한국언론학보』, 제49권, 한국언론학회, 2005.12, p.167. 프레임의 정의를 현실에 대한 인식·해석·제시·선택·강조·배제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패턴화하여 언어 또는 영상 담론을 조작한 것으로 강조하였다.

12) 남일우, 「문화기사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과 매체전략」,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7권, 한독사회과학회, 2017.09, p.8. 사건과 이슈를 보도할 때 형식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부각하는 것을 미디어 프레임이라고 규정하였다.

13) 이동훈·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pp.46-49. 프레임의 구조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표층 프레임과 간접적이고 내재적인 심층 프레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시한다. 아래 표는 당송팔대가의 총체적 문화역량을 상징하는 표층 프레임에 해당하는 定言을 정리한 것이다.

<표1> 강연의 표층 프레임

강연 편명	총체적 문화역량에 대한 定言
韓愈1	문학과 문화적 영향력, 문화유산의 제공자, 유가의 전승자, 천년의 奇人, 일대 문종
柳宗元1	문학과 문화적 영향력, 천재적 士人, 유가교육 확대의 공헌자, 우수한 전통문화
蘇軾1	중국문화의 아이콘, 우수한 문화 전통의 계승자, 黃州·杭州·儋州 인문경관의 담지체, 천고불후의 東坡居士, 현대정신을 갖춘 위대한 古人, 천년 중국의 인기인
蘇軾4	중국문화사의 거인, 우수한 전통문화, 중국문화사의 天才이자 全才, 雅文化와 俗文化의 宗師, 사상과 정신영역의 宗師, 문자학의 大家, 남송문인화의 宗師
王安石1	一代의 현명한 宰相이자 聖人, 개혁 사상의 담지체
蘇洵1	중국 문화사에서 '一門三蘇' 브랜드 확립, 정신사상의 모범, 유가사상의 계승자
蘇轍1	송대의 奇才, 소식과 결이 다른 문화 거장, 문화의 정점, 일대의 문학 大家
歐陽修1	문학거장, 문화거인, 문화의 최정점, 一代文宗, 一代의 宗師급 인물, 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고 창조한 全人, 유가사상의 부흥자, 경학·사학·금석학의 개척자
歐陽修4	위대한 인물, 정치·학술·문화의 一代宗師, 북송 문단의 宗師
曾鞏1	북송의 저명한 문학 大家, 인성의 모범적 역량, 인간적 진면목

강연진은 韓愈에 대해 유가정신을 전승하고 한 시대 문단을 견인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천년의 명인이고 문화유산이라 언술한다. 柳宗元에 대해 유가정신을 계승하고 한 시대 지식인의 모범이며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수한 전통문화라고 진술한다. 蘇軾에 대해 중국 인문정신을 체현하고 중국문화를 상징하며 아문화와 속문화를 통섭하면서 문화적 전능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천년의 명인이고 우수한 전통문화라고 선언한다. 王安石에 대해 정치력을 슬기롭게 발휘하고 뛰어난 지혜와 덕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국 정신의 담지체라고 제시한다. 蘇洵에 대해 유가사상을 준수하고 고유한 문화 브랜드를 보유했기 때문에 일대의 명인이라고 판단한다. 蘇轍에 대해 독자적 풍격의 문예를 창작하고 학술과 사상의 정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일대의 명인이고 문화의 정점이라 언급한다. 歐陽修에 대해 중국 정신사상의 모범이고 문화적 전능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천년의 명인이고 문화의 최정점이라 명시한다. 曾鞏에 대해 문학적 재능이 탁월하고 인성의 모범적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대 명인이라 주장한다. 당송팔대가가 총체적 문화역량을 보유한 집단이라 명시하는 강연진의 언술은 시청자들이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도록 틀 짓는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동시에 주목할 것은 당송팔대가의 문화적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강연진이 설명하

는 인생업적과 문예공적 관련 구체적인 언술이다. ‘2차 강연’은 5인이 분담하여 강연 하지만 강연진은 공통적으로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과 문예공적을 표창한다. 이는 ‘2차 강연’ 전체의 공통적인 해석의 틀이고 강연 속의 심층 프레임으로 구동한다. 아래 표는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과 문예공적을 발화하는 심층 프레임에 해당하는 언술을 정리한 것이다.

<표2> 강연의 심층 프레임

강연 편명	인생업적과 문예공적 언술 → 정신규범화·문예전범화
韓愈1	관계·학계·문단의 지도자, 고문운동의 영도자, 유가의 부흥자 [정신규범]
韓愈2	걸출한 문학가·사상가·정치가·무관, 교섭의 달인, 인의의 실천자, 매력적 인격 [정신규범]
韓愈3	古文의 제창자, 문예의 부흥자, 천고불후의 祭文, 전통 문체의 혁신자 [문예전범]
柳宗元1	탁월한 산문가·철학자·사상가, 뛰어난 개혁가·정치가, 좌천 관료의 모범 [정신규범]
柳宗元2	산수유기문의 大家, 천고불후의 명작 ‘永州八記’, 중국 유기문의 전범 [문예전범]
柳宗元3	천고불후의 寓言, 寓言을 문학의 독립 체제로 만든 공로, 예술적 감화력이 뛰어난 우언문학 전통 확립, 寓言의 독립성·전범성·창조성에 기여 [문예전범]
蘇軾1	탁월한 철학자·사상가, 중국 문예사의 全人, 탁월한 詩詞·散文 창작, 茶道와 美食의 전문가, 전범적 詩文 창작, 천고의 명작 文賦 [정신규범/문예전범]
蘇軾2	詩文의 문화유산화에 공헌, 애도 詞의 전범이자 천고의 절창 「江城子·乙卯正月二十日夜記夢」, 惠州의 인문경관을 반영한 왕조운(王朝雲) 관련 詩와 詞 창작 [문예전범]
蘇軾3	宋代의 최고 인기인, 매력적 인격, 박애주의자, 인성의 모범 [정신규범]
蘇軾4	宗師급 인물, 천년의 모범, 중국 지식인의 정신적 모범, 文宗, 雅文學의 宗師, 우수한 시·사·서에·그림 창작, 명청시기 소품문의 先河, 송대 호방파 詞의 개척·확립 [정신규범/문예전범]
王安石1	중국 역사상 가장 저명한 사상가·정치가·개혁가, 국가와 민생에 공헌한 관료, 변법의 추진자 [정신규범]
王安石2	송신종 개혁의 대행자, 송대 개혁의 견인자, 탁월한 개혁가 [정신규범]
王安石3	송대 개혁변법의 추진자, 개혁의 영웅, 정신 인격의 모범 [정신규범]
王安石4	一代文宗, 政論文의 혁신, 천고의 명문 「答司馬諫議書」, 표현형 遊記 산문의 전범, 산문의 영향력, 시풍과 문풍의 혁신에 기여, 전범적인 ‘王荊公體’ 창작 [문예전범]
蘇洵1	인애·지혜·용기·달관의 인격체, 탁월한 사상가·교육자 [정신규범]
蘇洵2	시대의 큰 인재, 유가사상의 실천자, 지조와 절개 정신의 모범, 交友 관계의 모범, 아버지로서의 헌신성, 布衣之士로서의 명성, 독립적 인격의 실천자 [정신규범]
蘇轍1	忠直之士의 모범, 저명한 문학가, 독립적 사상가 [정신규범]
蘇轍2	지식인 정신의 모범, 士人 정신의 실행자, 영향력 있는 정치가, 신중·담백한 매력적 인격, 천고의 명작 「爲兄軾下獄上書」, 뛰어난 학술저서 집필, 우수한 詩文 창작 [정신규범/문예전범]
歐陽修1	북송의 뛰어난 정치가·문학자, 북송 개혁 운동의 추동자, ‘天下爲己任’ 실행의 표본, 불굴의 정치가로서의 모범성, 문단의 영수, 북송 고문운동의 견인자, 고문창작의 전범 수

	림, 송대 시풍의 지표, 경학·사학·금석학의 개척자 [정신규범/문예전범]
歐陽修2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관료의 모범, 강직·불굴의 인격 모범, 간언과 설득의 달인 [정신규범]
歐陽修3	북송의 一代文宗, 문단의 영수, 고문 풍격의 확립, 古文 집대성, 후세 영향력 있는 문학성취, 인구에 회자되는 산문 창작, 산문 창작의 모범, 상투적 형식 돌파한 천고의 명작 「醉翁亭記」, 독보적 새로운 문체 散文賦 창조, 古文의 大家 [문예전범]
歐陽修4	저력과 분발 정신의 모범, 영원히 꺾이지 않는 인격 이상, 북송 사풍을 새롭게 연 북송 문단의 宗師, 인구에 회자되는 詞 창작, 독특한 '以詩爲詞'의 작품 창작 [정신규범/문예전범]
曾鞏1	기층 백성을 위한 실무 정치가, 의지와 인내의 모범, 모범적 交友 관계 실천 [정신규범]
曾鞏2	문학 宗師, 혁신적 고문 창작의 공헌, 독보적인 문학 재능, 독특한 풍격과 독자적 일파형성한 문인, 일가를 이룬 산문 성취, 일반적 '祠堂記' 변화에 공헌 [문예전범]

강연진은 당송팔대가 전체가 지닌 정신과 사상, 사람됨, 전능함을 칭찬하면서 정신적·인격적·전인적 기준이 되는 모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당송팔대가를 일대종사 혹은 문화사표로 규정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연진은 또 당송팔대가 전체의 문예창작 역량, 후세에 끼친 영향력, 문예사적 공적을 칭송하면서 혁신적 성과와 창조적 공헌을 부각한다. 이는 당송팔대가를 일대문종 혹은 문장대가로 규정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연진이 특정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화하는 인생업적과 문예공적 언술은 시청자에게 당송팔대가를 우수한 정신역량과 문예역량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공감하게 만든다.

강연 전반에 나타나는 문화유산 프레임은 당송팔대가의 생애와 창작에 내재한 문화적 가치를 강연진이 일관되게 긍정하는 내용이다.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과 문예공적을 긍정하면서 중국문화사에 기여한 정신문화 가치와 문예문화 가치에 근거하여 문화유산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로써 '2차 강연'의 목적은 총체적 문화역량이라는 프레임과 정신규범·문예전범이라는 프레임에 맞추어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으로는 '당송팔대가=문화유산'이라는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연진이 당송팔대가의 정신규범 가치와 문예전범 가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실제 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 정신규범의 담론

'2차 강연'에서 강연자들은 당송팔대가의 인생 궤적과 삶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해

설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당송팔대가가 세운 업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기인·위인·달인·천재·기재·전재·영웅·매력적 인격이라 칭찬한다. 특히 당송팔대가 모두가 갖춘 모범이 될 만한 덕행,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인격, 준칙이 될 만한 전능함을 포착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아래 표는 정신 가치를 긍정하는 담론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해당 언술이 출현하는 강연 편명을 분류한 것이다.

<표3> 정신규범 담론의 유형

정신규범 담론	韓愈	柳宗元	蘇軾	王安石	蘇洵	蘇轍	歐陽修	曾鞏
덕행의 사표	1·2편	1편	3·4편	1·2·3편	1·2편	1편	1·2편	1편
인격의 표본	1·2편		1·3편	3편	1·2편	1·2편	1·2·4편	1편
전인의 기준	1·2편	1편	1·4편	1편	1편	1·2편	1편	1편

위 표에 근거하여 강연진이 당송팔대가 인생업적에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 행동, 사람 됨됨이, 종합적 재능을 본보기로 삼고 배워야 할 정신 가치로 재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덕행의 사표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을 해설하면서 강연진은 당송팔대가 전체가 실천한 올바르고 도덕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부각한다. 특히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베풀며, 도의를 따르는 행동을 긍정하고 칭찬한다. 이는 韓愈와 王安石 강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연자 呂玉華(呂玉華)는 한유의 인생에서 번진의 반란을 평정하면서 민생을 위해 소임을 다했던 업적을 선택한다. 당목종(唐穆宗) 시기 절도사 왕정주(王廷湊)가 반란을 일으킨다. 병부시랑에 임명된 한유는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주(鎮州)로 가서 왕정주와 담판을 벌이고 교섭에 승리한다. 강연자는 먼저, 전주에 도착한 한유가 반란군에게 위협받고 모욕당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훈계한 사실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반란죄를 반성하고 다시 조정에 충성한다면 용서받고 사면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군심을 얻은 일을 부각한다. 또, 왕정주와 직접 대면하여 조정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영접을 받으며 혁혁한 무공을 세운 일을 긍정한다. 강연자는 유가의 입신과 처세 원칙을 따르는 士人으로서 仁義의 실천을 소임으로 삼고 용기를 내어 병란을 평정한 한유의 덕행을 칭찬한다.¹⁴⁾ 강연자는 유가 정치가로서 국가와 백성의

14) “『百家讲坛』唐宋八大家·韩愈2豪杰何须带刀剑”, 『CCTV节目官网』, 2015.08.05., <https://tv.cctv.co>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을 실천한 것이 한유의 덕행이라 판정하고, 본받고 계승할 만한 모범적인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강연자 왕리쥔(王立群)은 왕안석의 인생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치변혁에 분투했던 업적을 선택한다. 왕안석은 개혁변법을 추진하면서 반대파의 공격, 지지파의 배신, 군주와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개혁변법을 끝까지 추진한다. 강연자는 먼저, 송신종(宋神宗)의 신임 하에 왕안석이 지지층과 협력하여 개혁을 시작하지만 반대파의 거센 공격을 받고 좌절을 겪는 상황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개혁변법을 견인하는 중에 개혁과 내부가 분열하고 배신자가 발생하면서 변법이 추동력을 상실하는 과정, 그리고 신종의 재신임을 얻어 재상으로 조정에 복귀하여 개혁을 전개하지만 반대파와 여론의 복합적 저항에 변법이 폐지되는 사실을 부각한다. 강연자는 왕안석이 전개한 변법이 북송의 재정 적자를 개선한 점에서 성과가 있었고 왕안석은 스스로의 목표를 실현한 것이라고 긍정한다. 강연자는 왕안석의 변법이 시대적 한계로 인해 실패로 기록되었을 뿐, 당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왕안석 개혁의 업적이라고 칭찬한다.¹⁵⁾ 강연자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백성의 이익을 위한 변혁에 분투한 것이 왕안석의 덕행이라 판정하고, 본받고 계승할 만한 모범적인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2) 인격의 표본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을 해설하면서 강연자는 당송팔대가의 인간적 성품이나 품격, 삶과 인간을 대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부각한다. 특히 과감하고 용감하게 처사하고, 곤궁해도 현달해도 절개를 견지하며, 도리와 의리에 근거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를 긍정하고 칭찬한다. 이는 蘇洵과 曾鞏 강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연자 리보(鄺波)는 소순의 인생에서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굳게 지켜나아간 태도를 선택한다. 소순은 27세부터 10년 동안 과거시험에 도전하지만 급제하지 못한다. 자신의 꿈을 접고 두 아들의 과거급제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아들의 교육에 헌신하게 된다. 강연자는 먼저, 친구 장방평(張方平)과 뇌간부(雷簡夫)가 한직을

m/2015/08/05/VIDE1438751182283845. [2022.02.28.] 韓愈以儒家的道統來自任, 他的立身處世, 都體現出來儒家而精神. …(中略)…做爲一位士, 就要以仁義作爲自己的重大的責任去實踐它. …(中略)…評定叛亂的藩鎮就是利國利民的好事. 就評判來講, 韓愈功勞載史冊.

15) “『百家讲坛』唐宋八大家·王安石3不以成败论英雄”, 『CCTV节目官网』, 2015.08.16., <https://tv.cctv.com/2015/08/16/VIDE1439705297607700>. [2022.02.28.] 王安石的變法在一定程度上, 實現了自己的目標, 不僅解決了當時的財政赤字. …(中略)…對歷史人物, 我們不能以成敗論英雄的. 王安石的變法, 雖然在生活中間失敗了, 但是他的勇氣他的精神他的人格都讓我們肅然起敬.

추천하면서 소순이 과거시험에 계속 참가하기를 권유하지만 두 아들의 교육에 집중하고자 거절한 일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두 아들이 급제한 후 조정에서 소순을 미관 말직에 임명하려는데 추천해준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고자 자존심을 굽히고 받아들인 자세를 부각한다. 또, 한직에도 불구하고 『禮書』를 수정하는 일에 대해 유가의 도리를 중시하는 신념을 견지하려고 기꺼이 맡은 마음가짐을 긍정한다. 강연자는 인덕에 근거하여 처세하고 대의를 따라 지조와 절개를 고수한 소순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한다.¹⁶⁾ 강연자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선비로서 지켜야 할 헌신·신의·대의를 실행한 것이 소순의 훌륭한 인격이라 판정하고, 참고하고 계승할 만한 표본이 되는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강연자 가오장산(高長山)은 증공의 인생에서 진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벗과 사귀는 태도를 선택한다. 증공의 가장 친한 친구는 왕안석이다. 두 사람은 벼슬하기 전에 벤징(汴京)에서 우연히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친구가 되었다. 布衣之交로 시작한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강연자는 먼저, 왕안석이 과거에 급제하고 지방관으로 임명받자 증공이 고관인 채양(蔡襄)에게 왕안석의 문장과 인품을 칭찬하면서 중앙의 관직에 임명해달라고 추천한 일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북송시기 개혁파와 보수파의 투쟁이 격화될 때 증공이 왕안석에 영합하지도 적대시하지도 않았던 자세를 부각한다. 또, 송신종이 왕안석을 평가해달라 요청할 때, 왕안석의 대답한 추진력은 장점이고 성찰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은 단점이라고 대답한 증공의 객관적인 태도를 긍정한다. 강연자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친구와 정치적 충돌을 피하려 중립을 지켰으며, 위력 앞에서 친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증공의 품성을 칭찬한다.¹⁷⁾ 강연자는 이상과 목표를 공유한 친구를 진심으로 대하면서도 균형적 자세를 견지한 것이 증공의 훌륭한 인격이라 판정하고, 참고하고 계승할 만한 표본이 되는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3) 전인의 기준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을 해설하면서 강연진은 당송팔대가 전체가 갖춘 지혜롭고,

16) “『百家讲坛』唐宋八大家·苏洵2八大家里的另一家”, 『CCTV节目官网』, 2016.08.05., <https://tv.cctv.com/2016/08/05/VIDEGaJd6UIFJRF22OA2nlZG160805>. [2022.08.31.] 這是要陪兩個孩子去參加科舉考試, 明確說到我不是參加了. …(中略) …所以在他身上體現的是一個知識分子內心的富有和精神的操守, 還有深邃的思想.

17) “『百家讲坛』唐宋八大家·曾巩1位卑未敢忘忧国”, 『CCTV节目官网』, 2016.08.16., <https://tv.cctv.com/2016/08/16/VIDEHlPxKrEwzilJJKw9xQby160816>. [2022.08.31.] 他和王安石交往的第一件事情, 對王安石的舉薦. …(中略) …第二件事情, 對王安石變法的態度不迎合王安石不敵對王安石. …(中略) …第三件事情, 對王安石的評價. …(中略) …曾鞏的為人, 對朋友充滿真心, 真誠地對朋友.

타인과 잘 공감하며,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전인적 특성을 강조하고 부각한다. 특히 정치사상, 역사철학, 문학예술 방면에 능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전능함을 긍정하고 칭찬한다. 이는 蘇軾과 歐陽修 강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연자 리보는 소식의 인생에서 중국문화 다방면에서 존경받는 ‘문화종사’로서의 업적을 선택한다. 먼저, 문학 방면에서 소식의 詩가 이성적 사변이 풍부했고 우수한 잡문은 명청시기 소품문 풍격의 시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북송시기 詞風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호방파 詞를 개척했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예술 방면에서 소식의 서예작품 「黃州寒食詩帖」은 고금의 3대 행서로 인정받고 회화작품은 남송문인화의 선화가 되었으며 가야금 연주도 일품이었다고 부각한다. 또, 雅文化 뿐만 아니라 俗文化의 종사로서 동파육(東坡肉)과 동파羹(東坡羹) 등을 만든 요리사였고 차와 관련된 『論茶』를 쓰는 등 다도에도 능통했다고 긍정한다. 강연자는 정신적 역량의 정점을 보여주고 儒佛道 사상을 통섭하여 일가를 이루면서 중국문화사에서 빛나는 全才로서 중국 지식인의 정신적 스승이 된 소식의 전능함을 칭찬한다.¹⁸⁾ 강연자는 독립 정신과 자유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가·문학가·서예가·음악가·요리사·다도가로서 높은 경지를 발휘한 것이 소식의 전인성이라 판정하고, 귀감으로 삼고 계승할 만한 기준이 되는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강연자 리엔(林岩)은 구양수의 인생에서 송대 문화 각 방면을 선도한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선택한다. 먼저, 인재를 발견하는 혜안을 가진 구양수가 소식·중공·왕안석·사마광 등의 천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중용한 사실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以天下爲己任’이라는 진취의식을 갖춘 구양수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고 몸소 실천한 일을 부각한다. 또, 문학 방면에서 북송의 詩文 혁신운동을 시작하고 견인한 점, 경학 방면에서 새로운 이론으로 前代의 상투적인 이론과 복고 사조를 바꾼 점, 사학 방면에서 『新五代史』라는 역사서술의 새로운 체제를 만든 점, 『金石集』을 저술하며 금석학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전개한 점을 긍정한다. 강연자는 다방면에서 상황을 선도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위대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송대 각종 문화를 일신하고 만방에 이름을 알린 구양수의 전능함을 칭찬한다.¹⁹⁾ 강연자는 지적 능력과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정치가·문학가·경

18) “『百家讲坛』唐宋八大家·苏轼4伟大的天才与全才”, 『CCTV节目官网』, 2015.08.13., <https://tv.cctv.com/2015/08/13/VIDE1439447046561617>. [2022.02.28.] 蘇軾不論是雅文化俗文化方面樣樣精通, 可是要成爲一個宗師級的人物, 最關鍵的還要有精神層面的終極追求...(中略)...蘇軾在中國文化史上作爲一個巨人的出現, 最終還是因爲他思想的力量和精神的, 直到今天也依然是我們的榜樣.

19) “『百家讲坛』唐宋八大家·欧阳修1最敢说话的谏官”, 『CCTV节目官网』, 2016.08.12., <https://tv.cctv.com/2016/08/12/VIDEhvJCMLatroGdr2Yqgasu160812>. [2022.08.31.] 我覺得在歐陽修身上, 還有一種開闢新局面的偉大的氣魄和才力...(中略)...在史學方面, 他的新五代史開創了曆史著述的一種新體例, 而且他的金石集則開辟了金石學研究的一個新的領域, 可以說對後世都具有廣泛而深遠的影響.

학자·사학자·금석학자로서 만능적 재능을 발휘한 것이 구양수의 전인성이라 판정하고, 귀감으로 삼고 계승할 만한 기준이 되는 정신문화로 재현한 것이다.

4. 문예전범의 담론

‘2차 강연’에서 강연자들은 당송팔대가의 문예 창작과 성취를 집중적으로 해설한다. 그리고 문예 방면에서 당송팔대가 성공적으로 이룬 성취를 불멸의 명작, 천고의 걸작, 천년의 절창, 산문의 전범이라 칭송하면서 문예 공적을 반복적으로 진술한다. 특히 당송팔대가 문예창작에서 답습을 타파하고 진부함을 돌파한 혁신성과 새롭게 개척하고 시작한 창조성을 포착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아래 표는 문예 성취를 긍정하는 담론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해당 언술이 출현하는 강연 편명을 분류한 것이다.

<표4> 문예전범 담론의 유형

문예전범 담론	韓愈	柳宗元	蘇軾	王安石	蘇洵	蘇轍	歐陽修	曾鞏
혁신의 전형	3편		4편	4편		2편	1·3편	2편
창조의 모범	3편	2·3편	2·4편				3·4편	

위 표에 근거하여 강연진이 당송팔대가 전체의 문예 성취가 보여주는 어떤 혁신성과 창조성을 본보기로 삼을 만한 전범으로 재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1) 혁신의 전형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문예공적을 해설하면서 문예 관습을 타파하고 진부한 형식을 돌파한 가치를 주요하게 선택한다. 그래서 이전 시기 문예 창작과 비교하여 크게 바뀌고 달라진 성취를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부각한다. 주로 변려문의 속박을 벗어나 고문으로 바꾼 점, 기존 문체를 답습하지 않고 다르게 변화를 준 점, 상투적인 형식을 새롭게 바꾼 점 등을 긍정하거나 칭찬한다. 이는 韓愈·王安石·曾鞏 강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연자 휘위화는 한유의 문예에서 앞 시기 祭文의 상투성을 벗어나 참신하게 변화시킨 성취를 선택한다. 한유는 많은 제문을 썼는데 강연자는 「祭十二郎文」을

천년의 절창, 천고 제문의 절창이라 찬양하며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제십이랑문」에 대해서 조카 십이랑이 요절하자 한유가 쇠락하는 가문을 회상하며 슬픔과 상심을 표현한 점, 장수하지 못한 십이랑의 죽음에서 느낀 생명의 무상을 묘사한 점, 십이랑의 죽음으로 각성한 자신에 대한 연민과 환멸감을 반영한 점을 강조한다. 강연자는 「제십이랑문」이 일으키는 정감은 단순한 비애가 아니라 극한의 슬픔과 처량함이고, 한유가 진심어린 애도의 감정을 깊이 표현하였기에 기존의 제문을 넘어선 천고불후의 명작이 된 것이라고 칭찬한다.²⁰⁾ 강연자는 한유가 진실한 감정을 질박한 문자에 기탁하여 제문의 상투적 글쓰기에 변화를 준 것이 천고의 명작 「제십이랑문」이 보여주는 혁신성이라 판단하고, 전승할 만한 문예 혁신의 전형으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강연자 왕리첸은 왕안석의 문예에서 송대 주류 시풍의 관습을 타파하고 독특한 시체를 이룬 만년의 시가 성취를 선택한다. 왕안석이 만년에 창작한 시의 풍격은 산뜻하고 맑았는데 강연자는 ‘王荊公體’라 불리우는 만년의 시를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정치계에서 은퇴한 왕안석이 한가롭게 생활하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뛰어난 사경시와 영물시를 많이 창작한 점, 유유자적한 생활과 심리·태도의 변화로 시의 풍격이 온화하게 변한 점을 강조한다. 강연자는 왕안석이 생활과 정서를 결합하면서 기존의 의론시 주류 시풍과 다른 전원생활을 묘사한 시를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 ‘왕형공체’가 명작이라 불리우는 근거라고 칭찬한다.²¹⁾ 강연자는 왕안석이 진부한 의론시 창작 수법을 벗어나 산뜻하고 담담한 시풍으로 바꾼 ‘왕형공체’가 왕안석이 성취한 시가의 혁신성이라 판단하고, 전승할 만한 문예 혁신의 전형으로 재현한 것이다.

셋째, 강연자 가오장산은 증공의 문예에서 모방을 배제한 독자적 고문 창작의 성취를 선택한다. 증공은 소재의 취사, 편집의 묘미, 치밀한 구성이 뛰어난 산문을 많이 창작했는데 강연자는 증공의 ‘祠堂記’에 나타나는 독특함을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생활 속의 소재를 선택하고 主次를 잘 안배하여 층차감이 뚜렷한 편집 특징을 대표하는 증공의 ‘사당기’의 특이한 구성을 강조한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연자는 증공이 서예가 안진경(顔眞卿)을 기념하기 위해 쓴 「撫州顔魯公祠堂記」를 사례로 제시한다. 안진경의 가장 감동적인 일화 2가지를 선택하고 주선율과 부선율에 따

20) “『百家讲坛』唐宋八大家·韩愈3文起八代之衰”, 『CCTV节目官网』, 2015.08.06., <https://tv.cctv.com/2015/08/06/VIDE1438840472736702>. [2022.02.28.] 这一篇祭文就超越了寻常的祭文…(中略)…他就是有满腔的深情满腔的悲痛, 无以抒发寄托在文字上, 写出了这样千古不朽的名篇…(中略)…最深最真的感情是不需要修饰的, 这就是千古名篇祭十二郎文的最大的特点, 也被誉为祭文中千古绝唱.

21) “『百家讲坛』唐宋八大家·王安石4自成一家王荊公”, 『CCTV节目官网』, 2015.08.17., <https://tv.cctv.com/2015/08/17/VIDE1439787985013226>. [2022.02.28.] 王安石的心情變得非常淡定非常曠達非常透徹, 所以他創造了王荊公體的一大批代表作…(中略)…王荊公體稱呼是後人對王安石晚年詩歌創作的一種肯定和褒獎, 這一類的詩歌深受大家的喜愛.

라 안진경의 절개와 용기, 강직한 성품을 통해 주제를 두드러지게 하는 수법은 문학 종사로 찬양받는 이유라고 칭찬한다.²²⁾ 강연자는 기존 문체의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소재선택, 문장구성, 편집특징을 통해 사상과 내용을 표현한 독자적 방법이 일반적 산문 창작 수법을 넘어서 증공 산문의 혁신성이라 판단하고, 전승할 만한 문예 혁신의 전형으로 재현한 것이다.

2) 창조의 모범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문예공적을 해설하면서 기존에 없던 문예 스타일을 만들고 새로운 문예 유과를 처음 시작한 공헌을 주요하게 선택한다. 그래서 당송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개척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성취를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부각한다. 주로 기존 문예에 없던 새로운 형식을 시작한 점, 독립적인 문체로 새롭게 만든 점, 문예 유과를 처음으로 개척한 점을 긍정하거나 칭찬한다. 이는 柳宗元·蘇軾·歐陽修 강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연자 위위화는 유종원의 문예에서 ‘山水游記文’이라는 새로운 스타일과 규범을 개척한 공헌을 선택한다. 유종원은 영주로 귀향가서 10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500편이 넘는 문장을 썼는데 강연자는 천고의 명작이라 불리는 『永州八記』는 산수유기문의 걸작이라며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변화하는 유종원의 심리가 경치에 스며들어 정감 색채가 풍부해진 점, 직접 목격한 풍경 속에 유종원이 느낀 감정을 기탁하여 생동감이 풍부해진 점, 경물을 묘사하면서 삶에 대한 성찰을 융합하여 인문적 색채가 풍부해진 점을 강조한다. 강연자는 산수 경물로써 개인의 운명과 인생을 성찰하는 글로 승화시킨 것이 『영주팔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고 후대 산수유기문 창작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고 칭찬한다.²³⁾ 강연자는 유종원이 자신의 심리·인식·정서·감정·사색·사고 등을 경물에 기탁하여 인문적 요소가 강한 새로운 산수유기문을 창작한 것이 천고의 명편 『영주팔기』의 창조성이라 판단하고, 후세에 영향을 주고 전승될 수 있는 문예 창조의 전범으로 재현한 것이다.

둘째, 강연자 리보는 소식의 문예에서 호방한 스타일의 詞를 새롭게 시작하고 발

22) “『百家讲坛』唐宋八大家·曾巩2卓然自成一家”, 『CCTV节目官网』, 2016.08.17., <https://tv.cctv.com/2016/08/17/VIDEccDk204d2nftwf7kQij1160817>. [2022.08.31.] 這種寫法使文章中心特別突出, 氣質內斂而遒勁有力, 所以曾鞏的這篇祠堂記, 得到了後代古文家的高度贊揚. …(中略)…這類的文章讓我們看到曾鞏特別善於剪裁生活當中的素材, 按照構想匠心獨運地編排, 有主有次, 層感特別分明.

23) “『百家讲坛』唐宋八大家·柳宗元2高山流水遇知音”, 『CCTV节目官网』, 2015.08.08., <https://tv.cctv.com/2015/08/08/VIDE1439011281833516>. [2022.02.28.] 永州八記, 這樣震古爍今的千古名篇, 開創了中國山水遊記的嶄新風格. …(中略)…柳宗元的永州八記是山水遊記的典範之作, 後代人寫山水遊記, 總會受到柳宗元的. …(中略)…又會把個人的情感去寄托在山水當中, 也使得山水遊記富有人文色彩.

전시킨 공헌을 선택한다. 소식은 풍격이 다양한 사를 창작했는데 강연자는 천고의 명작 「江城子·密州出獵」은 호방과 사의 시작이고 「念奴嬌·赤壁懷古」는 호방과 사의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부드럽고 나긋한 ‘婉弱 詞風’을 벗어나 소식이 자신의 기백과 기세를 표현한 점, 곤경을 겪는 상황에서 오히려 씩씩하고 굳센 기개와 진취적 정신을 묘사한 점, 인생의 좌절에 대해 대담하고 초탈한 관점을 반영한 점을 강조한다. 강연자는 특히 사의 제재와 주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솔직한 감정과 대범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 「강성자·밀주출렵」과 「염노교·적벽회고」가 보여주는 새로운 사의 스타일이고 후대 호방과 사의 새로운 규범이 되었다고 칭찬한다.²⁴⁾ 강연자는 소식이 광활하고 초탈한 경지를 사에 표현하면서 호방한 사의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고 사의 지위를 시나 문장과 동급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천고의 명작 「염노교·적벽회고」의 창조성이라 판단하고, 후세에 영향을 주고 전승될 수 있는 문예 창조의 전범으로 재현한 것이다.

셋째, 강연자 리옌은 구양수의 문예에서 ‘散文賦’라는 새로운 문체를 처음으로 시작한 공헌을 선택한다. 구양수는 성률이 엄격하고 내용 표현이 빈약했던 율부(律賦)에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산문 구조를 율부에 적용하여 駢散이 결합한 산문부를 창조했는데 강연자는 「秋聲賦」를 천고의 걸작이라 칭찬하며 독창적인 창작수법을 부각한다. 이에 강연자는 「추성부」가 자연현상과 노화현상을 연계하여 문장의 사상과 내용을 깊게 만든 점, 운문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산문을 가미하여 자유자재로 서정과 설리, 서사와 묘사를 융합하면서도 賦體 문학 고유의 운율미를 살린 점을 강조한다. 강연자는 병문(駢文)의 리듬과 산문(散文)의 자유롭고 깊은 내용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탄생한 구양수의 「추성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체이고 후세 문인의 산문부 창작에 시범이 되었다고 칭찬한다.²⁵⁾ 강연자는 구양수가 의론(議論)·서사(敍事)·서정(抒情)·상물(賞物)을 하나로 융합하여 산문과 부의 완벽한 결합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문부를 시작한 것이 천고의 명편 「추성부」의 창조성이라 판단하고, 후세에 영향을 주고 전승될 수 있는 문예 창조의 전범으로 재현한 것이다.

24) “『百家讲坛』唐宋八大家·苏轼4伟大的天才与全才”, 『CCTV节目官网』, 2015.08.13., <https://tv.cctv.com/2015/08/13/VIDE1439447046561617>. [2022.02.28.] 蘇東坡開了豪放詞一派…(中略)…轉變詞風的關鍵作品出現, 那就是江城子·密州出獵…(中略)…念奴嬌·赤壁懷古, 這是一個標誌性的作品…(中略)…一拓天地, 進入廣闊天地之間…(中略)…蘇東坡把詞抬上了和詩和文一樣的地位.

25) “『百家讲坛』唐宋八大家·歐陽修3古文別有洞天”, 『CCTV節目官網』, 2016.08.14., <https://tv.cctv.com/2016/08/14/VIDEQBVjd04PK1V6sThuM75t160814>. [2022.08.31.] 歐陽修還是特別富有創造力的古文大家, 經由他的創造, 誕生了新的文體, 那就是散文賦…(中略)…他獨創的散文賦將抒情說理敘事狀物等巧妙地融合在一起, 實現了散文與賦的完美結合…(中略)…正是由於歐陽修的開創性貢獻.

5. 나오는 글

이 연구는 ‘2차 당송팔대가강연’에서 강연진이 당송팔대가 전체를 문화적 자산으로 해석하는 담론을 분석하여, 오늘날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정립하는 데 근거로 삼는 문화 가치의 실제 내용을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강연 전반에 나타나는 문화유산 프레임을 분석해보았다.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삶과 창작에서 우수한 문화 가치를 포착하였고 총체적 문화역량을 보유한 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이라 선언한다. 이로써 당송팔대가를 ‘일대종사·일대문종·문화유산·문화종사·문학대가·문학거장·문화거인·문화정점’ 등으로 공인한다. 또 정신적·문예적 문화 본보기가 되는 정신규범과 문예전범이라는 프레임으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이라 명시한다. 이로써 당송팔대가를 ‘인재(人才)·기재(奇才)·천재(天才)·전재(全才)’ 등으로, 그들의 문예는 ‘천고의 명작, 불멸의 걸작, 천년의 절창’ 등으로 인증한다. 강연진은 정신규범과 문예전범이라는 위상은 팔가 전체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한다. 또 소식과 구양수의 총체적 문화 역량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다만, 소순·증공의 총체적 문화역량을 표창하고 소철을 문화정점으로 극찬하는 선언에 비해 실제 강연 내용에서는 근거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송팔대가를 중국 정신문화의 규범으로 정립하는 담론을 분석해보았다.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인생업적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실천한 도덕적 행동, 훌륭한 인성, 문화 다방면에서의 전능함을 긍정한다. ‘公忠·仁愛·仁和·正義·慈愛’ 등은 당송팔대가가 실천한 덕행이다. ‘勇氣·剛直·氣概·節概·博愛·誠信·敬業·自強·友愛·友情’ 등은 당송팔대가가 체현한 인격이다. ‘무관·학자·화가·개혁가·경학자·교육자·문학자·사상가·서예가·역사가·예술가·정치가’로서 두루 통섭한 능력은 당송팔대가가 발휘한 문화 전능함이다. 강연을 통해 이러한 도덕·윤리·전인적 가치는 현대 중국인이 배우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정신적 규범으로 전파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송팔대가를 중국의 문예 전범으로 정립하는 담론을 분석해보았다. 강연진은 당송팔대가의 문예공적을 부각하면서 혁신적 성취와 창조적 공헌을 칭찬한다. 산문방면에서 변려문의 폐단을 없애고 참신한 고문으로 창작한 점, 관습적 문체의 상투성에 변화를 준 점, 詩·詞·散文의 스타일을 기존의 진부한 형식과 다르게 바꾼 점은 당송팔대가 문예 혁신의 전형성이다. 새로운 산문 체재를 만들어 후세에 영향을 준 점,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만든 점, 시·사·서예·회화에서 새로운 유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점은 당송팔대가 문예 창조의 모범성이다. 강연을 통해 이러한 문예의 혁신성과 창조성은

현대 중국에서 전승할 만한 문예적 전범으로 교육되는 것이다.

덕행과 인격의 표준이 되고 문화 융합과 통섭을 실현했기 때문에 당송팔대가 전체는 도덕윤리 함양의 규범이 되고 현대 중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정립되고 있다. 혁신과 창조의 방식으로 문예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당송팔대가 전체는 중국 문예발전 법칙의 거울이 되고 현대 중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정립되고 있다.²⁶⁾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정신 계와 문예계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당송팔대가의 문화적 역량이고,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계승하고 활용하는 현실적 용도이며, ‘2차 강연’에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재현하는 목적이다. 현대 중국의 미디어 프로그램 『백가강단』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기획이다. ‘2차 강연’의 방영 취지는 중국 문화사의 중요한 상징인 당송팔대가의 우수한 문화 전통성을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²⁷⁾ 21세기 중국에서 당송팔대가를 단순한 고대문학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전통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전시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최근 중국은 문화대국 전략을 전개하면서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추진 중이다.²⁸⁾ 중국의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고 우수성을 발굴하여 세계에 보급하는 것은 소프트파워 강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현재 중국의 문화전략과 연동하면서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재현한 ‘2차 강연’은 당송팔대가를 소프트파워로 정립하는 문화기획의 실천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당송팔대가를 문화유산으로 재현하는 담론의 실제 내용을 규명한 이 연구는 21세기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 전략의 실제 사례를 고찰한 점에서 현재적 의의가 있다. 또 당송팔대가를 재현하고 있는 미디어 강연에 대해 한중 양국의 미진한 논의를 보충한 점에서 당송팔대가 연구의 충론을 확장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가 당송팔대가에 대한 충론과 문화론을 체계화하고 당송팔대가를 연구하는 최신의 참고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신HSK의 기출문제에서 당송팔대가의 정신가치와 문예성취를 제시한 문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의 세계화 전략과 국가 공인의 평가체계 속에 나타나는 문화소프트파워의 실례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26) 張岱年·程宜山 공저, 장윤수 외 2인 역, 『중국문화정신』, 예문서원, 2019, pp.340-346. 우수한 문학예술은 창작 당시와 현재에도 사상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전승되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27) “『百家讲坛』唐宋八大家(下部)”, 『CCTV节目官网』, 2016.11.10, <https://tv.cctv.com/2016/11/10/VIDAziZInopokNOpyZ3C2NZel61110>. [2022.08.31.] 唐宋八大家, 是中國文化史上一個重要的符號, 明代人依據唐宋時代對中國古文寫作的貢獻, 將八位重要的散文作家合稱為唐宋八大家.

28) 이육연,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 『동아연구』, 제56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9.02, pp.18-20.

29) 신진호, 「21세기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에 관한 고찰」, 『중국학보』, 제70권, 한국중국학회, 2014, pp.244-249.

【참고문헌】

<단행본>

이동훈·김원용,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張岱年·程宜山 공저, 장윤수 외 2인 역, 『중국문화정신』, 예문서원, 2019.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방법론』, 컬처북, 2015.

<논문>

김원용·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보도」, 『한국언론학보』, 제49권, 한국언론학회, 2005.

남일우, 「문화기사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과 매체전략」,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7권, 한독사회과학회, 2017.

신진호, 「21세기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에 관한 고찰」, 『중국학보』, 제70권, 한국중국학회, 2014.

이옥연, 「중국의 문화대국 전략」, 『동아연구』, 제56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9.

이준웅,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사회』, 제29권, 사단법인 언론과사회, 2000.

임춘영, 「‘당송팔대가강연’에 나타난 현대중국인의 가치관」, 『동방학』, 제43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최석원·김보경, 「王安石에 대한 조선의 평가와 인식: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41권,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유미정, 『역주(譯註) 구소수간(歐蘇手簡)』,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2021.

조혜진, 『유종원 의론산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20.

董宝厚·周维新, 「文采·史实·哲思——辽宁省博物馆“山高水长——唐宋八大家主题文物展”想」, 『美术观察』, 第3期, 中国艺术研究院, 2021.

李源清, 「整体论视阈下的唐宋八大家研究」, 『佳木斯职业学院学报』, 第7期, 广西幼儿师范高等专科学校, 2020.

林亚斐, 「浅论曾巩的人品·文品及官品」, 『东华理工大学学报』, 第38卷, 东华理工大学 社会科学研究, 2019.

莫 琮, 『明代韩愈古文接受研究——以明代古文选本为视角』, 西北大学 博士論文, 2019.

许 迪, 『苏洵古文经典化研究』, 河南师范大学 碩士論文, 2019.

<기타자료>

“『百家讲坛』唐宋八大家(上部)”, 『CCTV节目官网』, 2015.08.17., <http://tv.cctv.com/2015/08/18/VIDA1439884458369110.shtml> [2022.02.28.]

“『百家讲坛』唐宋八大家(下部)”, 『CCTV节目官网』, 2016.11.10., <https://tv.cctv.com/2016/11/10/VIDAziZInopokNOpyZ3C2NZel61110.shtml> [2022.08.3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百家讲坛, 唐宋八大家讲坛, 文化遗产, 精神规范, 文艺典范				
	영문	Lecture room, Lecture on the eight great Tang and Song prose writers, Cultural heritage, Spiritual norm, Literary classic				
<div>The Analysis of Cultural Heritage</div> <div>Discussion on The Eight Great Tang and Song Dynasty Prose Writers</div> <div>: Focusing on ‘The Second Lecture Room Lecture</div> <div>on the Eight Great Tang and Song Dynasty Prose Writers’</div> <div>Lim Chun-Young</div> <p>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contents of the discussion where the lecturers prescribed the eight great Tang and Song prose masters as the cultural heritage in ‘the second Tang and Song masters lecture’ of Lecture Room which is the public lecturing program in China. The importantly considered are as follows. First, they investigated the framework in the lecture where the speakers regarded the masters as the group of cultural capacity and the cultural example with spiritual and literary value. Second, through the presenters’ discussion where they interpreted the great prose writers as the guiding star, the model of character and the standard of the human beings, the presenters concretely clarified the points that all of these masters are the spiritual norm. Third, based on the lecturers’ discussion that they understand these masters’ works as the paragon of the renovation and the standard of the creativity, the speakers made it clear that these masters’ creative works are the literary classic. Thus, we would like to stipulate this ‘the second Tang and Song great masters lecture’ as a part of the strategy of the cultural country where China seek to promote and spread these great writers as its remarkable traditional culture. We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one of the latest reference materials for the scholars who try to systematize the introduction and the theory of culture on the study of the eight great Tang and Song prose writers.</p>						
저 자	임춘영 / 林春英 / Lim Chun-Yo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2.10.	심 사 일	2023.03.05.	게재확정일	2023.03.20.